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최영진^{1*}

¹춘해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Young-Jin Choi^{1*}

¹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인 사회적지지가 내적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환경에 대한 정보와 평가, 유효한 지원, 정서적 관심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상담자와 교수자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 본인 스스로 진로성숙도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ffects career maturity.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career maturity of junior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luding information and evaluation of the student environment, effective support, and emotional interest, a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erceive high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structors should support students who have anxiety about their uncertain future so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career maturity.

Key Word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Social support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과 성격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하며 조직사회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인 의미는 물론, 자아실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은 생존뿐만 아니라 자

본 논문은 2020년도 춘해보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oung-Jin Choi(Choonhae College)

Tel: +82-52-270-0251 Email: youngjin@ch.ac.kr

Received June 04, 2021

Revised July 01, 2021

Accepted July 18, 2021

아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주요사건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대학 시기는 자신과 외부환경 탐색을 통해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직업 선택이나 결정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진로성숙은 대학생 시기에 발달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대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적 요인으로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연구에서 주요한 변인들로 연구되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작용,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이론을 기초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개념화한 것이며,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진로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행동에 대한 결정, 전략 사용이나 수행의 수준, 성취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처음으로 진로에 적용시킨 Betz와 Fitzgerald[1]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미결정성이 적고, 진로성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크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정감, 진로태도 성숙, 학업성취, 흥미 등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단순히 개인 내적변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내적요인만 고려하면 외부환경, 즉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지각 여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행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적지지는 외적인 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연

구되어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지지해주며, 스트레스 완화 및 조절을 하는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4]. 김정숙[5]은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에 따라 진로성숙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신정옥[6]은 부모, 가족, 친구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효능감을 높이며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른 격차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였다[4-7]. 김봉환[8]은 진로미결정 원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미흡을 들었다.

이에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관계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진로를 준비할 기간이 짧아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한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인 사회적지지가 내적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본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진로계획과 진로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에서 진로지도,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2.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3.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4.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부산, 울산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보건계열, 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3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즉 졸업반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연구의 목적,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가 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1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포함된 것은 자료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3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n	%
성별	남성	34	18.6
	여성	149	81.4
전공	인문사회계열	54	29.5
	보건계열	84	45.9
학년	공학계열	45	24.6
	2학년	91	49.7
생활형태	3학년	92	50.3
	가족과 함께	111	60.7
계	따로	72	39.3
		183	100.0

연구대상자 183명은 여자가 149명(81.4%), 남자가 34명(18.6%)이었다. 전공은 보건계열 84명(45.9%), 인문사회계열 54명(29.5%), 공학계열 45명(24.6%) 순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이 91명(49.7%), 3학년이 92명(50.3%)이었다. 생활 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이 111명(60.7%), 따로 생활이 72명(39.3%)이었다.

2.2 연구도구 및 신뢰도

2.2.1 연구도구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의 도구를 기반으로 김연수가 수정, 보완한 도구[3]를 사용하였다. 4개 하위요인,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자신은 자신의 관계망 구성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자 애정의 대상임을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 자신이나 주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 또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관한 확신, 피드백 등 구체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평가적지지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 Vuyten이 25개의 문항으로 개정한 단축형(CDMSE-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5개 하위요인, 25개 문항으로 구성[9]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자신에 대한 능력,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기평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에 관련된 내용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정보수집, 또 자신의 진로를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다는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논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계획수립,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문제해결이다.

진로성숙도는 Crites와 Savickas가 CMI를 개정해서 만든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 Revised)의 카운슬링 양식[3]을 사용하였다. 4개 하위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우선시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관여성, 직업에 대해 탐구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는 호기심, 적합하고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인 확신성, 그리고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정보를 받아들여 진로의사결정에 도움을 모색하는 정도인 협의성이다.

2.2.2 신뢰도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연구변인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Cronbach's α 는 .948 - .978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s α 는 .942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Cronbach's α 는 .961-.969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s α 는 .954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Cronbach's α 는 .926-.935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s α 는 .89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고, 각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과 측정문항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3개의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ey[10]의 3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of Research Variables

[표 2] 연구변인의 신뢰도

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지지	경서적지지	7	25	.955
	정보적지지	6		.958
	물질적지지	6		.948
	평가적지지	6		.978
				.9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계획수립	5	25	.966
	목표설정	5		.961
	문제해결방식	5		.965
	직업정보수집	5		.969
	자기평가	5		.965
				.954
진로성숙도	관여성	6	24	.927
	호기심	6		.934
	확신성	6		.926
	협의성	6		.935
				.898
계		74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결과

수집된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전체평균(표준편차)은 3.50(.67), 4개 하위요인의 평균(표준편차)은 3.24(.62)-3.61(.7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38(.75), 5개 하위요인의 평균(표준편차)은 3.29(.71)-.44(.78)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전체평균(표준편차)은 3.34(.76), 4개 하위요인의 평균(표준편차)은 3.16(.83)-3.53(.65)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 3미만, 첨도는 절댓값 10미만으로 나타나 다변량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연구변인	하위요인	M	S.D	왜도	첨도	계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3.61	.70	-.175	-.508	3.50 (.67)
	정보적지지	3.57	.72	-.413	-.243	
	물질적지지	3.59	.71	-.338	-.326	
	평가적지지	3.24	.62	.077	-.7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계획수립	3.37	.71	-.201	-.521	3.38 (.75)
	목표설정	3.44	.78	-.408	-.683	
	문제해결방식	3.41	.76	-.289	.077	
	직업정보수집	3.29	.71	-.456	-.279	
진로성숙도	자기평가	3.39	.76	-.387	-.568	3.34 (.76)
	진성.관여	3.18	.79	.061	-.568	
	진성.호기	3.53	.65	-.950	2.020	
	진성.확신	3.16	.83	-.154	-1.058	
	진성.협의	3.50	.67	-.825	.581	

3.2 상관분석 결과

연구변인의 하위요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표 4] 과 같다. 모든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value<0.01)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간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0.742(p<0.01)로 사회적지지 0.697(p<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Results of Research Variables

[표 4] 연구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836**	1											
3	.925**	.912**	1										
4	.716**	.678**	.726**	1									
5	.510**	.516**	.551**	.542**	1								
6	.580**	.561**	.623**	.572**	.829**	1							
7	.560**	.574**	.630**	.562**	.809**	.863**	1						
8	.478**	.495**	.521**	.457**	.768**	.793**	.759**	1					
9	.591**	.557**	.631**	.519**	.791**	.858**	.801**	.786**	1				
10	.549**	.536**	.582**	.494**	.568**	.599**	.601**	.691**	.547**	1			
11	.654**	.649**	.685**	.579**	.643**	.699**	.662**	.662**	.716**	.631**	1		
12	.492**	.491**	.524**	.430**	.452**	.489**	.496**	.605**	.456**	.859**	.632**	1	
13	.660**	.650**	.665**	.567**	.625**	.658**	.647**	.665**	.707**	.600**	.804**	.637**	1

* p<.05, ** p<.01

1. 정서적지지, 2. 정보적지지, 3. 물질적지지, 4. 평가적지지, 5. 계획수립, 6. 목표설정, 7. 문제해결방식, 8. 직업정보수집, 9. 자기평가, 10. 관여성, 11. 호기심, 12. 확신성, 13. 협의성

진로성숙도와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 결과, 진로성숙도의 호기심과 사회적지지의 물질적지지가 .685(p<.0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은 진로성숙도의 협의성과 사회적지지의 물질적지지가 .665(p<.01), 진로성숙도의 협의성과 사회적지지의 정서적지지가 .660(p<.01)순이었다.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 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 결과, 진로성숙도의 호기심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가 .716(p<.0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은 진로성숙도의 협의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가 .707(p<.01), 진로성숙도의 호기심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이 .699(p<.05)순이었다.

3.3 회귀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적변인인 사회적지지가 내적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게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를 검사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변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

인인 물질적지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3.1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F값은 48.1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1) 설명력은 46.9%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β =.308), 정보적지지(β =.266), 평가적지지(β =.17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표 5]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β	R ²	수정된 R ²	F
독립 변수						
정서적지지	.289	.110	.308**			
정보적지지	.244	.106	.266*	.479	.469	48.148***
평가적지지	.179	.087	.175*			

* p<.05, ** p<.01

3.3.2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와 같다.

F값은 42.48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1) 설명력은 40.6%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β =.197), 정보적지지(β =.237), 평가적지지(β =.27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표 6]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β	R ²	수정된 R ²	F
독립 변수						
정서적지지	.192	.109	.197			
정보적지지	.225	.101	.237*	.416	.406	42.488**
평가적지지	.302	.092	.276**			

* p<.05, ** p<.01, *** <.001

3.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F값은 43.8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1), 설명력은 57.3%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β =.463, p<.01)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Table 7]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표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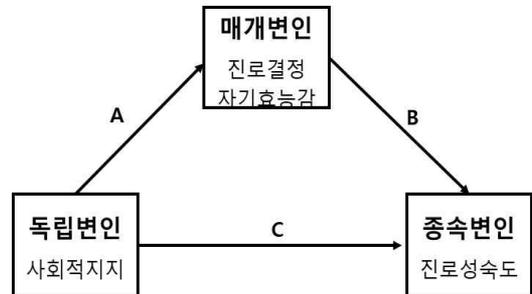
변수	b	SE	β	R ²	수정된 R ²	F
독립 변수						
계획수립	-.015	.094	-.017			
목표설정	.042	.110	.050	.586	.573	43.886***
문제해결방식	.155	.095	.181			
직업정보수집	.454	.091	.486***			
자기평가	.101	.095	.116			

* p<.001

3.4 매개효과 결과

3.4.1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의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ey[10]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검증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3단계 절차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경로A)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 = .643$, $p < .001$). 2단계(경로C)에서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 = .691$, $p < .001$). 3단계(경로B)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 = .512$, $p < .001$).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들어가지 않은 2단계보다 매개변수가 들어간 3단계에서 감소($\beta = .691 \rightarrow .310$)하였다. 즉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Mediated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표 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 ²	수정된 R ²	F
1	독립변인→매개변인					
단계	사회적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708	.643***	.414	.411	127.910***
2	독립변인→종속변인					
단계	사회적지지→진로성숙도	.722	.691***	.477	.474	145.193***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3	단계					
	사회적지지→진로성숙도	.324	.310***	.594	.589	115.77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성숙도	.490	.512***			

* $p < .001$

3.4.2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9]과 같다. Z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Table 9] Sobel Test

[표 9] 소벨테스트

Input	Test Statistic	p-value
a: .708		
b: .490		
Sa: .063		
Sb: .072	5.821***	.000

* $p < .001$

4.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이 지각하는 외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와 취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진로성숙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진로선택의 환경적 변수이자 개인의 외재적 요인인 사회적지지(socialsupport)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지지해 주며[1], 스트레스 완화 및 조절을 하는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4]와 일치한다. 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숙의 연구[5]에서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진로의식 성숙 정도가 높다는 것과도 같은 결과이다. 한편, Flores와 O'Brien은 진로태도성숙 및 부모의 지지와 관련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입증[11]하였는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는 그들의 직업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과 가치에 대해 의미 있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또 진로포부 및 선택에도 중요한 예언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환경에 대한 정보와 평가, 유효한 지원, 정서적 관심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 이전 연구[3][9]와 동일했다.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중 주위의 부모나 친구의 인정, 도움 격려 등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추후 자신의 진로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와는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Lent[12]의 사회인지진로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환경적지지는 진로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을 통한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 진로 의지, 진로 목표를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에 대한 장벽이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내적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타인보다 우수하며, 자신의 미래가 타인의 미래보다 더 나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며,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즉 주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주도적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과 또 진로목표 달성에 맞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직업적 발달과 과업에 대한 성숙된 준비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Taylor와 Betz[13]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이 Crites[14]의 진로태도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다양한 연령에서 진로 및 직업선택의 준비정도를 말해주는 진로성숙 수준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9],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2]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설명력이 5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언변인이라는 이기학, 이학주[1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직업정보수집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희선의 연구[16]에서 목표설정,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이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경향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보수집만 의미 있게 나타내는데 비해, 유희선의 연구에서는 직업정보수집을 비롯한 3개의 하위요인도 의미 있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명확한 확신, 계획의 필요성, 판단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높고, 진로와 취업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즉 전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진로성숙도에는 외적인 변인인 사회적지지보다 내적인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언변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부합

성인데, 전문대학의 경우, 진로 결정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직업선택을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 취업 후 적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업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 다양한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및 취업상담자와 교수자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 본인 스스로 진로성숙도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내적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외적요인인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후속연구에서는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울산지역 일부 전문대학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졸업학년은 취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진로성숙도는 학년, 성별뿐만 아니라 전공, 대학 소재지역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를 간과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른 다집단분석으로 구체화하여 검증할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지지 형태에 따라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지지라는 것은 받는

주체에 따라 지각되는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여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제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실제로 진로성숙도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횡단적 연구와 함께 종단적 연구 혹은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학생의 회고적 보고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고, 다른 변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

- [1] N. Betz and L. Fitzgerald,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7.
- [2] M-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feriority according to children's perfectionism tendency system',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3] S-R. Kim, 'The Effects of Career seek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Ph.D. thesis Gangnam University, 2018.
- [4] S-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isord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College Students-Career Self-Filiation Effects of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005.
- [5] J-S. Kim, S-R. Kim and J-M. Tak,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Effect on the level of decision mak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amily Science*, Vol.9, No.4, pp.5-14, 2006.
- [6] J-O. Shin, 'Social support, career dis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Educational Research*, Vol.19, No.2, pp. 109-141, 2012.
- [7] M-S. Cho and K-S. Choi, 'Self-identity,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in later adolescents Relational model verification of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unseling Academic Research*, Vol.8, No.3, pp.1085-1099, 2007.
- [8] B-H. Kim, 'Development and Secondar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Original typology'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7.
- [9] H-W. Jeo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d by Career Attitude Matur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13, No.1, pp.95-115, 2014.
- [10] R. Baron and D.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11] L. Flores and K. O'Brien,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pp.14-27, 2002.
- [12] R. Lent, S.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1994.
- [13] K. Taylor and N.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93.
- [14] J. Crites and M. Savickas,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pp.131-138, 1995.
- [15] G-H. Lee and J-C. Han, 'Tool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ing t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8, No.21, pp. 9-255, 1997.
- [16] H-S. Yoo, 'The Media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effect',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